

# 한동훈, '김 여사 해법 3대 요구' 들고 쇄신 드라이브

### 대의 활동 중단·대통령실에 관련 인맥 정리·의혹 규명 협조 촉구 재·보궐서 존재감 확인 당정 개혁 강수...“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인맥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뒤통수'를 치며 당내 리더십을 확인한 한 대표가 위기의 여권을 전면 쇄신하기 위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해설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격려와 우려를 이번에만 반박하지 말고"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

항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여사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저희가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 치는 것을 막겠다"며 "당의 절차, 사법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종으로 만들어 온 것이 이번 여론조사 장난질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여론조사 장난을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다른 일정으로 인해 늦게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만이 야당의 현정 파괴 시도를 막을 수 있다"며 "제가 앞장서서 정부·여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야 야당의 현정 파괴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국감 현장

## 정준호 "호남고속도 동광주IC~산월IC 체증 극심"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산월 구간이 5년 연속으로 서비스 등급에서 최하위인 'F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광주~용봉', '용봉~서광주', '서광주~동림', '동림~산월' 4개 구간이 모두 F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호남고속도로 전체가 심각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호남고속도로에서는 최고 등급인 'A등급' 구간이 전혀 없으며, 전체 평균 수준은 C-D 등급에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교통량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2015년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총사업비 분담 협약(국비 50%, 시비 50%)이 체결됐으며, 2022년에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도 완료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4년 말까지 교통처리계획 협의와 착공 준비를 마치고, 2025년 1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담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실질적인 착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 민주, 명태균 의혹 추가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발의

### "검찰, 수사 의지 없어... 특검-상설특검-국정감사로 진실 밝혀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세 번째로 발의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3개로 확대됐다. 특검법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새

의혹들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천개입, 선거 개입에 이어 불법 여론조작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는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굴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로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위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국민의 65%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김 여

사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여당도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삼켰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총견이기를 자처했으나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조롱할 줄은 몰랐다"며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더 강화된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날아뺏아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대통령실, 재보선 결과에 "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

17일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이번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승리를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4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해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에서는 여당의 강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잘 새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원이 "중소기업 5곳 중 1곳 대기업 갑질 경험"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 기업의 20.4%(102곳)가 대기업에 제품을 판매할 때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세부유형은 묻는 질문에 68.6%(70곳)가 일명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감액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변경이 25.5%(26곳), 부당 반품 23.5%(24곳),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21.6%(22곳) 순이었다. 공정위의 제재와 중기부의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3일~27일까지 이메일과 전화로 병행하여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 4.38%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등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